

한국관광, 이제 양보다 질

문체부, 14일부터 품질인증 시행
한국관광공사, 인증기관 담당



정부가 한국 관광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품질 인증 제도를 마련한다. 기존 각종 인증제는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 품질인증제다. '관광진흥법' 개정(18년 3월13일 공포, 18년 6월14일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 인증제도는 지난해 2월 기준 84개(숙박 14, 음식 56, 소양·여행상품·기타 14)에 달할 정도로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홍콩(2000), 스페인(2001), 뉴질랜드(2001), 프랑스

(2005), 영국(2006) 등 기도입 해외 관광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다. 외국도 대부분 해당 국가 관광공사가 맡고 있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다.

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 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소방 안전과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과 교육, 위생 관리 서비스 제공과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 홍보 역량 강화(홍보와 관측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다양한 개별 인증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통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공룡과의 하룻밤'

익산보석박물관 1박2일 캠프 성료

익산보석박물관은 익산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익산시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함께하는 1박2일 캠프를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공룡과의 하룻밤'이라는 테마로 진행했다.

1박2일 캠프는 익산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중 초등학교 5, 6학년 19명과 함께 함도도시, 익산의 자랑거리와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의 유적 및 유물에 대해 공부하고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캐릭터북걸이, 미니동물원, 보물찾기, 전통예절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그중 낭산다례원(유보연 원장)의 전통예절 체험은 처음엔 아이들이 낯설고 어색해 했으나, 예부터 내려오는 인간존중의 근본정신을 요목조목 설명하는 등 인사예절 및 식사예절을 진행해나가자 점차 편안한 분위기가운데서 평절, 큰절을 배우고 차와 떡을 즐기는 시간을 즐겼다.

또한 불꽃놀이 행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익산시민 및 주변 지역민이 함께 환호하며 즐길 수 있었던 즐거운 퍼포먼스가 되었다.

참가 어린이는 "가공기술이 뛰어난 우리 익산도시가 자랑스럽고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잘 수 있었던 것도 신이 났으며 특히 불꽃놀이는 최고로 멋졌다"며 "다음에도 꼭 보석박



'공룡과의 하룻밤'을 주제로 한 익산보석박물관의 1박2일 캠프가 지난 8~9일 진행됐다.

물관에서 또 다른 체험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석박물관 공룡과의 하룻밤 1박2일 캠프 참가로 신나게 뛰어놀며 행복해지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니 특별 과제 수행 중 협동하는 모습과 배려하는 미덕 등

을 스스로 깨우쳐나가는 것에 매우 놀라웠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하여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한 추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신간도서 - 정유석 '보헤미안에서 천국으로'

전설이 된 'QUEEN' ... 그들의 음악세계로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은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 한 획을 그은 팀이다. 1971년 영국 런던에서 프레디 머큐리(1946~1991·보컬), 브라이언 메이(71·기타·보컬), 로저 테일러(69·드럼·보컬), 존 디콘(67·베이스)에 의해 결성됐다.

1973년 데뷔 앨범 '퀸'부터 머큐리의 사망 이후 발매된 '메이드 인 헤븐'까지 15장의 스튜디오 앨범과 여러 장의 라이브 앨범, 베스트 앨범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2억장에 가까운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퀸은 멤버 네 명 모두가 히트곡을 보유한 작곡가다. 밴드가 결성된 당시로서는 드물게 네 명 모두가 학사 출신인 '고학력 밴드'였다.

머큐리는 본래 디자인을 전공해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다. 퀸의 유명한 '불사조 로고'도 직접 그렸다. 천문학을 전공한 메이는 천문학 관련 서적을 저술하고 TV 과학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다. 테일러는 정열적인 드럼 연주뿐 아니라 탁월한 보컬 실력으로 퀸의 앨범과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디콘은 베이스리스트는 자신의 보지 외에도 공연 도중 브라이언의 기타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석에서 직접 솔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실력을 뽐냈다.

1991년 머큐리가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지만, 머큐리를 추모하고 퀸을 사랑하는 팬

들의 성원은 현재진행형이다. 퀸의 음악을 사용한 발레 '발레 포 라이프', 퀸의 음악만으로 구성된 뮤지컬 '위윌 록 유' 등이 팬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의 애덤 램버트(36)와 합작 퍼포먼스 '퀸+애덤 램버트'로 월드 투어를 돌고 있다.

라이브 클럽 '공간 비틀즈'를 운영 중인 정유석 씨가 펴낸 '퀸(QUEEN) 보헤미안에서 천국으로'는 부제처럼 '퀸 디스코그래피로 보는 퀸의 역사'다.

데뷔 앨범 '퀸'부터 밴드의 프리트랜인 머

큐리의 유작 앨범 '메이드 인 헤븐'까지 소개하고 전곡을 해설했다.

앨범 제작기간 벌어진 멤버들과 주변인들 간의 에피소드, 앨범 녹음 과정, 머큐리의 죽음, 이어진 디콘의 탈퇴, 그 후로 활동까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퀸의 이름으로 발표된 라이브 음반과 편집음반, 비디오 등 퀸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음악평론가 남무성씨는 "쉽게 볼 수 있는 바이오그래피가 아닌 음악 제작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라며 "정유·비정규 레코딩을 망라한 정보들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퀸 팬클럽 '퀸 포에어' 김관준 회장이 감수했다. 412쪽, 2만8000원, 북피엔스 /뉴시스

문체부-예술위, 여가친화기업 8월 31일까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2018 여가친화기업'을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직장 내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여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2012년부터 추진해왔으며, 2017년까지 79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올해는 사람이 중심인 직장,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 발굴에 초점을 두고, 근로자 여가 시간(근로시간, 연차소진 등)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 실태와 직장문화에 대한 직원 의견

심사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임직원 인터뷰 등)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선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모두 여가친화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정부포상 및 인증기업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2018년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 6. 5. 문화체육관광부발표)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여가친화기업 선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